

순항 이어가는 흥명보호...팔레스타인 잡고 '5연승' 도전

쿠웨이트에 3-1 승...황인범 2도움·배준호 썬킥골 등 활약 올해 A매치 마지막 경기... '캡틴' 손흥민은 51호골 도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흥명보호가 올해 A매치 마지막 상대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A매치 5연승 행진'에 도전한다.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을 벌인다.

지난 14일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 원정에서 3-1 대승을 따낸 대표팀은 올해 A매치 최종전인 팔레스타인을 맞아 A매치 5연승과 더불어 11월 '중동 원정 2연전 싹쓸이'를 노린다.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지난 9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친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인범(페예노르트),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만렌) 등 핵심 유럽파 선수들이 총출동했지만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0-0으로 아쉽게 비겼다.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면서 프로 리그도 중단되고, 대표팀 선수 선발도 쉽지 않은 상대인 팔레스타인과 비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극전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충분했다.

특히 흥명보호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 치른 경기부터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후 치러진 월드컵 3차 예선 2-5차전에서 내리 4연승을 거두면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에서 승점 13(승 1무)으로 2위 요르단과 3위 이라크(이상 승점 8)와의 격차를 승점 5차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약 두 달 만에 팔레스타인과 다시 만나는 흥명보호는 최근 상승세를 앞세워 승리만 바라보고 있다. 흥명보호는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힘든 중동 원정 2연전의 마지막 경기이자 올해 A매치 일정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인 만큼 화끈한 승리로 A매치 5연승의 신바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로 한국(22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다.

다만 원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한국은 지난 14일 쿠웨이트전처럼 빠른 득점을 앞세워 일찌감치 기선제압에 나선 뒤 소나기 골로 상대를 무력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전에서 다양한 기록도 세울 수 있다.

쿠웨이트와 월드컵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개인 통산 50호골을 터트리며 황선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과 '역대 남자 A매치 최다골' 공동 2위에 오른 손흥민은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앞세워 단독 2위로 올라설 태세다.

더불어 손흥민의 후계자로 성장한 원곡 날개 배준호(스토크시티)는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지난14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오세훈(왼쪽)이 이라크의 알 하디리(오른쪽)를 제치고 팀의 첫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트를 노린다.

배준호는 요르단,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서 연속 도움을 기록하더니 쿠웨이트와 5차전에서 썬킥골을 꽂으며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쌓은 바 있다.

또 원톱 스트라이커 주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은 이라크전과 쿠웨이트전 득점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한편, 흥명보호는 17일 오후 쿠웨이트를 떠나 전세기편으로 2시간여의 비행을 통해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암서 모래판 최강 가린다... 천하장사씨름대축제



25일부터 7일간... 해외 10국 참가 세계특별장사전도

영암에서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 펼쳐진다.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영암군체육회, 영암군씨름협회가 주관한다.

대회에서는 천하장사전, 남자체급별장사전(소백급,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최강단전(초·중·고·대·남자일반부·단체전), 여자체급별장사전(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을 비롯해, 해외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특별장사전'도 치러진다.

올해 세계특별장사전에는 몽골, 스페인, 중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조지아, 일본, 튀르키예 등 해외 10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대회 첫날인 25일 초·중·고·대학부 최강단전에선, 여자부 체급별 예선을 시작으로, 26일 초·중·고·대학부 최강단전 결승, 여자부 체급별 장사결정전이 펼쳐진다.

27일에는 소백장사(-72kg) 결정전, 28일 세계

특별장사(-140kg) 결정전 및 태백장사(-80kg) 결정전이 진행된다.

이어 29일 남자 일반부 최강단전 결승 및 한라장사(-105kg) 결정전, 30일 금강장사(-90kg) 결정전, 12월 1일 천하장사 결정전이 진행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씨름대회인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지난해 활약상을 보여줬던 전남 선수단이 올해도 시원한 한판 승부로 정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해 남자일반부 최강단에 올랐으며, 최성환은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순천팔마초 씨름단은 지난해 대회에서 초등학교 최강단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모든 경기는 맞불기(토너먼트)로 진행된다.

26-29일 경기는 KBSN(KBS N SPORTS)에서, 30일-1일 경기는 KBS한국방송(KBS1TV)을 통해 생중계되며, 유튜브 채널 '살바TV'를 통해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전남당구연맹 소속 서서아 세계 여자 10볼 선수권 준우승



국내 랭킹 1위 서서아(전남당구연맹)가 17일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에서 열린 '2024 세계 여자 포켓 10볼 선수권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프로 빌리어드 시리즈 제공>

국내 랭킹 1위 서서아가 2024 세계 여자 10볼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서아(전남당구연맹·세계 랭킹 12위)는 17일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에서 열린 '2024 세계 여자 포켓 10볼 선수권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2위에 올랐다.

서서아는 지난 16일 준결승에서 지난 2023년 대회 우승자인 체스카 센테노(필리핀)를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서서아는 세계 랭킹 3위 크리스티나 트카흐와 결승에서 만나 폴세트 점전 끝에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했다.

4-1로 1세트를 가볍게 가져온 서서아는 2세트를 트카흐에 내줬고 다시 3세트를 따내며 2-1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4세트에서 수비 실수로 게임스코어 2-3 역전 당하면서, 승부는 세트 스코어 2-2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2022-2023년 대회에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서서아는 이번 세계 무대 결승까지 진출하며 한국 여자 포켓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국대회 우승 후 국내랭킹 1위로 오른 서서아는 지난해 ALFA 라스베이거스 여자 10볼 오픈 우승과 세계 여자 9볼 선수권 공동 3위, 지난 8월 '레이디스나인볼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활약으로 '차세대 포켓볼 퀸' 타이틀을 얻었다. /서민경 기자 minky@

전남 정수현,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씨름대회 장년부 1위

구례 김지우·김다령 학생부 3위

'제17회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씨름대회'에서 전남의 정수현이 장년부 -90kg급 1위를 차지했다.

정수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대전 조형섭을 준결승에서 2-0으로 제친 뒤, 결승

에서 경북의 이정태에 2-0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특기기술이 배지기인 48세 정수현은 현재 영광군체육회에서 씨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수현은 지난 6월 '2024 영광법성포만오예 씨름대회'에서도 장년부 1위에 올랐다.

정수현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신 영광군 정병환 체육회장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 '정하운, 정윤창, 서영미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 학생부 -80kg급에서는 구례군청반달곰스포츠클럽 김지우와 김다령이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